

| 이달에 만난 사람 |

● ● ● 심준식 천호계우회연합회 회장

채란업 현안문제, 회원 단합으로 풀어야



35년 넘게 계우회 활동

심준식 회장은 68년 사료업계에 근무하다가 70년대부터 서울 천호지역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지역은 천호계우회와 청량리계

우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는데 청량리계우회는 도시화에 따라 폐쇄되고 현재 천호계우회만이 남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호계우회는 현재 20여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체기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채란업계는 집행부 세대 교체라는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업계 변화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고 표명하는 전 16대 채란분과위원장(본회 부회장) 및 전국계우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심준식 현 천호계우회연합회 회장의 역할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본 기자가 심준식 회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채란업 현안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심준식

전)강남라이온스클럽 회장
전)국제라이온스354-D지구 사무총장, 감사
전)생활체육서울시축구연합회 6,7대회장
전)생활체육서울시축구연합회 자문위원장
전)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자문위원
전)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부회장
전)전국계우회연합회 회장
현)국제라이온스354-D지구 자문위원
현)대한양계협회 천호채란지부 지부장
현)천호계우회연합회 회장

월례회의는 매월 5일과 22일 두 번씩 개최하여 정 보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산지계란가격 제값 받기 틀 마련

심회장은 35년 넘게 계우회 활동을 하면서 농가들이 계란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힘써왔는데 특히 농가 피해가 큰 소위 후장기(농가계란 수취 후 결제방식)를 없애고, 덤핑을 일삼는 악덕상인을 업계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결과 지금은 산지에서 계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형매장에 세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일부 농가로 인해 계란유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계란 생산자가 단합하여 나쁜 악습을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란계발전협의회는 채란분과위원회를 통해 정책 펼쳐야

최근에 채란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산란계발전협의회는 심회장이 채란분과위원장으로 재임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란 농가라면 모두 협회에 참여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환영을 할만 한 일이므로 산란계발전협의회는 채란분과위원회와 더불어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되 현안 문제는 채란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심회장의 의견이다.

농가에 세척시설과 냉장시설 확대되어야..

심회장은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



▲3월 채란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심준식 전 부회장

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란등급제가 산란농가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선호되어야 하며, 당장 농가 실정을 볼 때 콜드 시스템과 세척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농가까지 냉장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냉장저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냉장차량을 운영하여 농장에서 계란판매장까지 신선한 계란을 유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생적인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농장에서도 간단히 계란을 세척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거론하고 있는 항생제 잔류 문제는 단기간에 승부하기보다는 꾸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생산자 계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신임 채란분과위원장의 리더쉽을 기대하며

김선웅 신임 채란분과위원장은 오래 동안 난가 정보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창의적이면서 원만하며, 강한 리더쉽을 갖추고 있으므로 모든 과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심회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선웅 위원장이 모든 일을 산란농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하였다.(정리 | 김종준 과장)